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5. 26 | IBKS Research

Insight Monthly 6

2026

반도체 | 가전/전자부품 | 디스플레이 | 인터넷/게임/AI | 화학/정유 | 유통/식자재

유틸리티 | 통신 | 자동차 | 2차전지 | 건설/부동산 | 조선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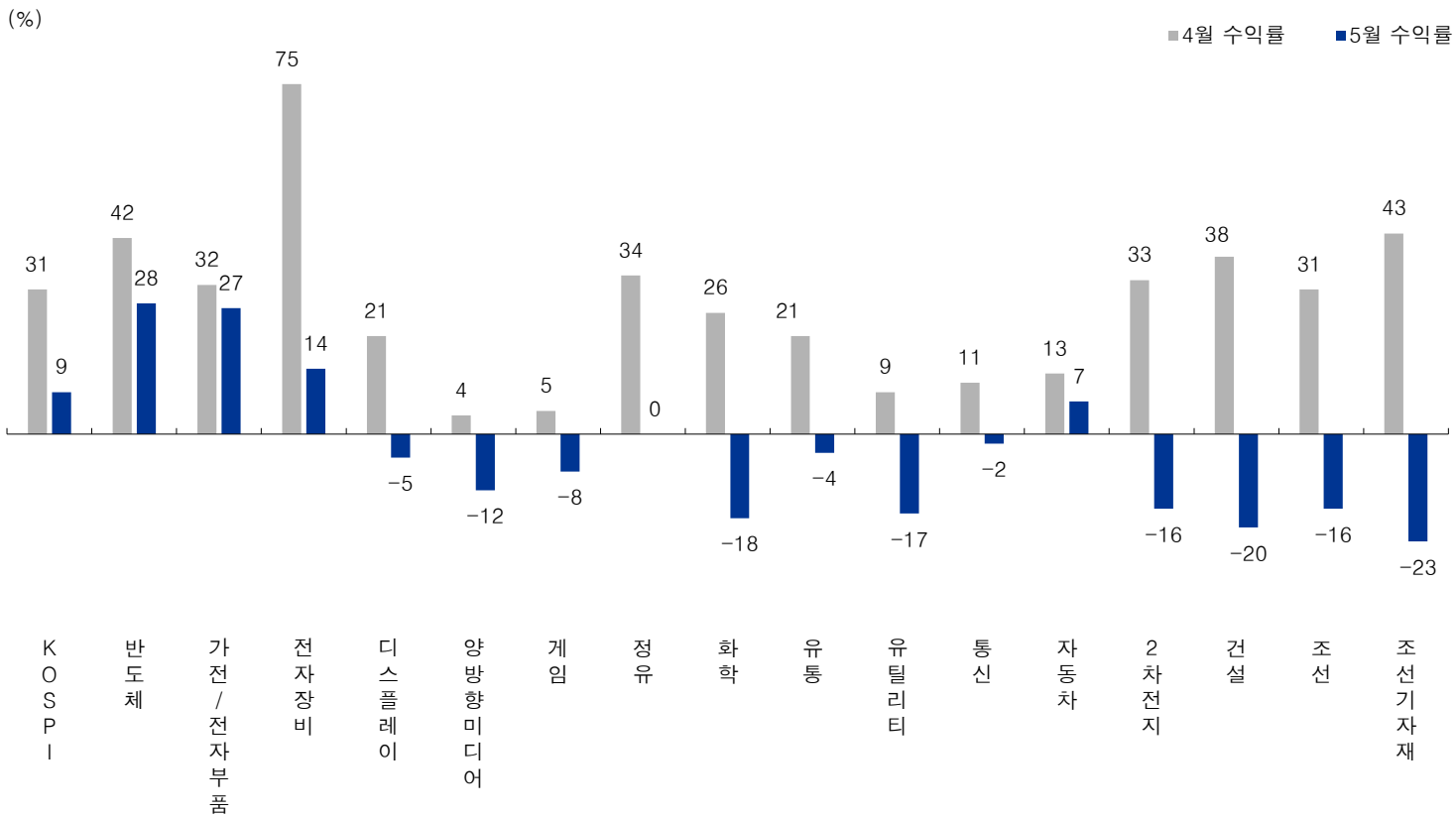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5월	6월	7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삼성전기, 아모텍
IT/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선익시스템
AI/인터넷/게임				카카오, NC
화학/정유				S-Oil, 롯데정밀화학
유통/식자재				오리온홀딩스, 호텔신라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5월	6월	7월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통신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삼성SDI, 더블유씨피
건설/부동산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조선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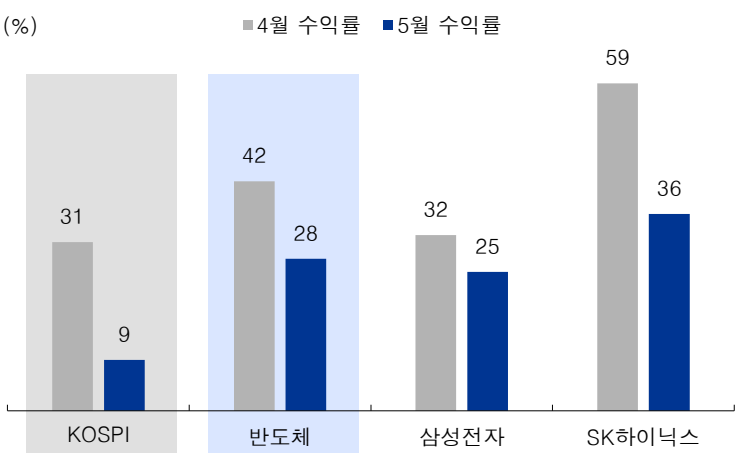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IT/반도체

5월 성과 분석

- 5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27.6%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8.4%P 상회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주요 CSP 업체의 Capex 확대 기조 및 고객사의 투자 지원 제안 등으로 메모리 수요 기대 지속되며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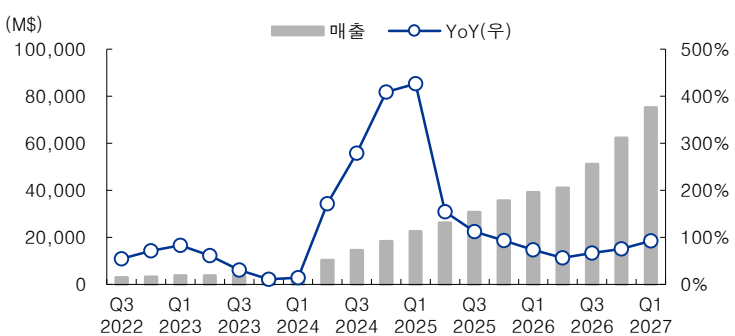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NVIDIA 27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 매출액은 $81.6B(YoY +85%, QoQ +20%), 컨센서스 $79.2B
- Datacenter 매출액 $75.2B(YoY +92%, QoQ +21%), 컨센서스 $73.5B
- Hyperscaler와 ACIE(AI Clouds, Industrial, Enterprise) 매출을 구분해서 발표. 비중은 각각 50%
- Datacenter Networking 매출은 지난 해 대비 199% 증가

NVIDIA Datacenter 매출액



자료: NVIDIA, IBK투자증권

IT/반도체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6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분기 DRAM 고정 가격은 이전 전망 수준 상회할 것. Mobile DRAM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을 것, 서버는 40% 대로 전망
- NAND 가격 상승폭이 더 높을 전망
- 메모리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 연내 매분기 마다 사상 최대 실적은 갱신할 것으로 기대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6월 Top Picks

삼성전자

- 26년 2분기 매출액 159.6조원, 영업이익 84.4조원으로 전망
- DS 사업부 영업이익 83.4조원으로 예상.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 90조원을 넘겠지만, 2분기부터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반영. 이로 인해 이전 전망 대비 개선은 소폭 수준일 전망
- 모바일은 원가 부담이 2분기부터 본격화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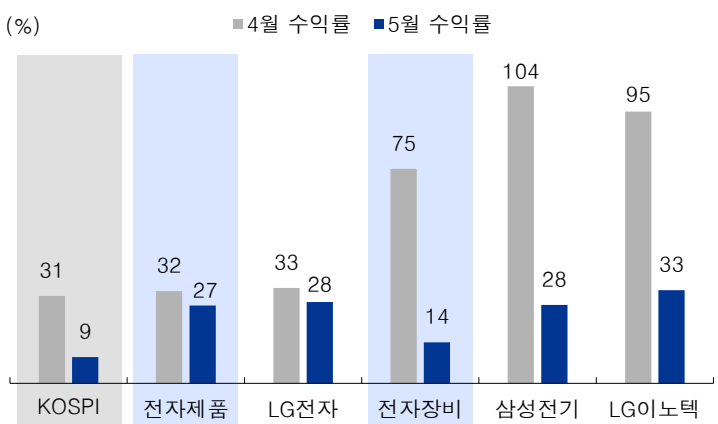
- 26년 2분기 매출액 74조원, 영업이익 57조원으로 예상
- DRAM, NAND 가격 상승 반영하면 60조원 상회할 것
- 실적 개선세 지속
- 지나치게 저평가된 가격. 왜곡된 수급에 기인

[IT/반도체/가전/전자부품] 김운호

IT/가전/전자부품

5월 성과 분석

- 5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27.3%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8.1%P 상회
- 5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14.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5.1%P 상회
- LG전자는 휴머노이드 클로이드 양산 계획 및 NVIDIA와의 피지컬 AI 협력 발표로 로봇 밸류체인 주목 받으며 상승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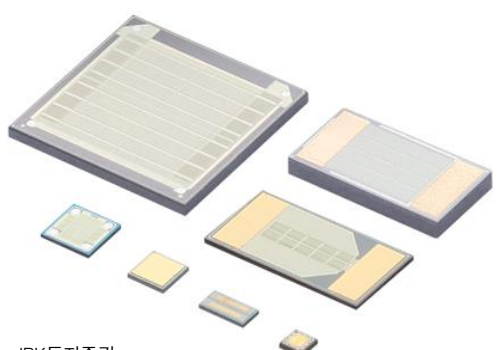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삼성전기, 실리콘 커패시터 수주 공시

- 삼성전기는 26년 5월 20일 공시에서 1.6조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수주 계약을 밝힘
- 기간은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매출은 27년 5,000억원, 28년 1조원으로 배분될 전망
- High End Chip을 보조하기 위한 패키지 및 관련 부품들의 기술 개발이 동행되고 있고, 향후 진입 장벽이 될 것

Silicon MLCC



자료: Murata, IBK투자증권

IT/가전/전자부품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6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 될 전망. 모바일 관련 부품은 부진할 것
- 가전 성수기. 1분기 대비로는 부진할 실적 전망. 로봇 관련 주식으로 부상. AI 공조도 새로운 성장 동력
- AI 서버 관련 기판 업체들 실적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
-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AI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이 원인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6월 Top Picks

삼성전기

- 2026년 연말까지 계단식 실적 개선 기대
- MLCC 가격 인상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 기판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도 동반될 것
- 투자 주체는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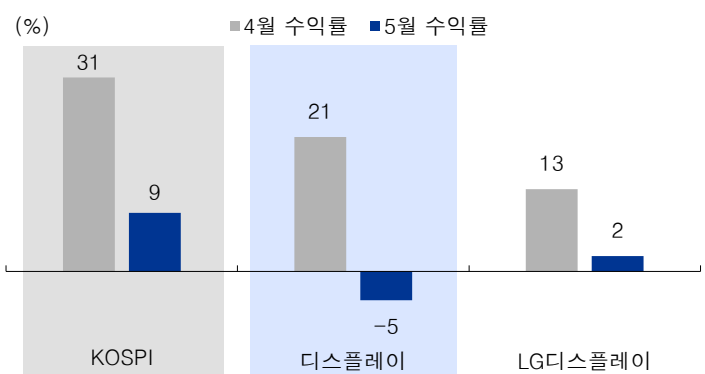
아모텍

- MLCC 가 성장 동력
- 전장에서 AI로 사업 영역 확대. 26년 1분기 매출 확인
- AI 주력 제품은 광네트워크
- 광 스위치 칩을 생산하는 Marvell이 대표 고객
- 추후 Amphenol, Lumentum으로 확장 계획
- GPU 관련 제품 개발 중
- 모터 부문 사업 확장(전장에서 ESS)

IT/디스플레이

5월 성과 분석

- 5월 디스플레이 업종 지수는 -4.5%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3.8%P 하회
- 디스플레이 업종은 스마트폰 OLED 패널 출하량 감소로 인해 전월 대비 업종 지수 하락
- SID 2026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플렉스 크로마 픽셀, LG디스플레이 3세대 텐덤 OLED 등 차세대 기술이 공개되며 중장기 성장 측면의 긍정적 모멘텀 상존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BOE, 8.5세대 LCD 공장 WOLED로 전환

-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패널사인 BOE가 난징 B18 공장을 WOLED로 전환하는 투자를 진행 중
- 해당 공장에서는 TV 및 모니터용 WOLED 패널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예상 CAPA는16k/월로 국내 패널사 대비는 작은 수준
- 파일럿 수준에 그쳤던 허페이 공장에 이어 난징 공장의 전환은 IT OLED 시장에 대한 BOE의 공격적인 진출 계획의 일환이라고 판단. 제한적인 CAPA이나, 최근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이밍 모니터를 집중 생산한다면 국내 업체의 점유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IT/디스플레이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디스플레이 업종은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를 지나는 중.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3분기로 예정됨에 따라 레거시 모델의 출하량 하락 전망됨
- LG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에 상당 수준의 1회성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반영하면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이 예상됨
- 그렇지만,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은 Physical AI발 상승 사이클을 기대 중. 로봇, 자율 주행차 등 상용 제품 등장 시 LCD 대비 OLED의 차별점인 저전력, 유연성 등의 특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함

6월 Top Picks

덕산네오룩스

- 삼성디스플레이 A6 양산 가동 시작으로 전방 고객사의 생산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
- 북미 최종 고객사의 Foldable, Notebook, Tablet 등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한 OLED 신제품의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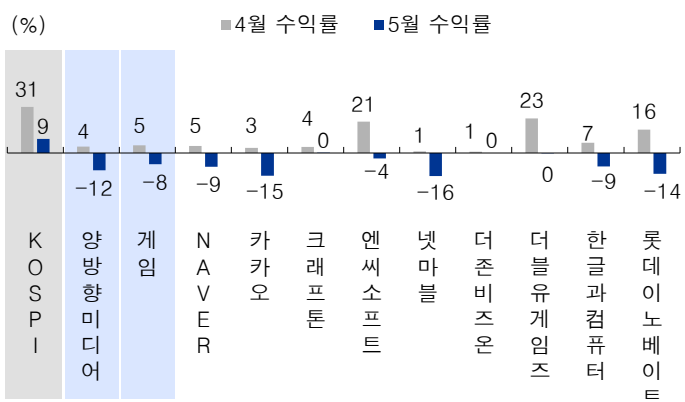
선익시스템

- 특정 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장비사의 특징으로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0.9억원, 영업이익 14.7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함
- 그렇지만, OLEDoS, 페로브스카이트 등 사업 다각화에서의 성과가 하반기 신규 수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
- 중화권 고객사향 8세대 증착기를 모두 수주하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 연내 1대분에 대한 매출인식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적의 하방도 제한적인 상황

AI/인터넷/게임

5월 성과 분석

- 5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11.6%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20.8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7.5%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16.7P 하회함
-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며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해 지수가 하락함
- 게임 업종은 하반기 신작 모멘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 반전함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국내 금융권, 두나무 지분 투자 –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확대

- 하나금융그룹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1조원어치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 5,978억원 가량 취득 결의를 진행했으며, '글로벌 넘버 원 실물기반 토큰화 자산(RWA) 허브'를 비전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임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취득 관련 공시 내용

2.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한화투자증권(주)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주식취득은 전액 현금 매수로 진행되는 건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97,843,934,600원 현금 매수를 통해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보유 구주 1,361,050주 취득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IBK투자증권

AI/인터넷/게임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최근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임. 반도체 랠리가 점차 진정된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의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됨
- 국내 AI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기초체력을 입증함. 여기에 자체 AI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 폭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임
- 게임 업종은 펄어비스의 신작 흥행에 힘입어 향후 출시될 콘솔 중심의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최선호주로는 카카오와 엔씨소프트(NC)를 제시함

6월 Top Picks

카카오

- 적자 자회사와 다음 운영사(AXZ) 매각을 통해 플랫폼 본업에 집중, 메시지 및 쇼폼 광고의 두 자릿수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함
- '챗GPT for 카카오'를 중심으로 AI 사용자 경험을 개선함. 외부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결제까지 이어지는 에이전트 커머스를 확립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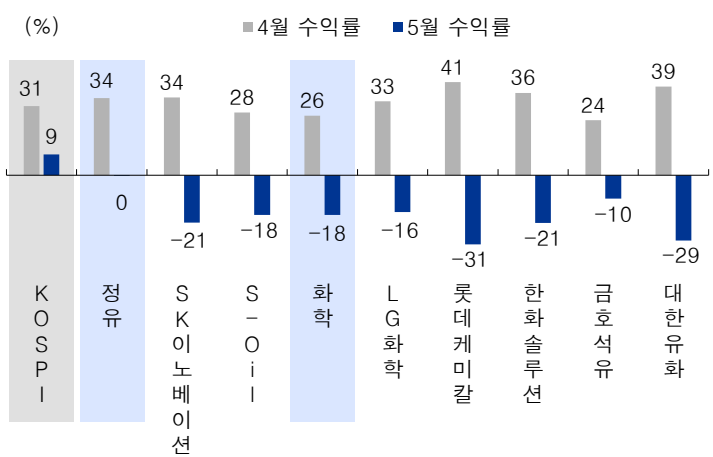
NC

- '아이온2'의 안착과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 중임. '리니지 클래식'의 동시 흥행으로 2분기에도 강력한 실적 성장이 기대됨
- 최근 인수한 캐주얼 게임사 'Just Play'가 1분기 영업이익 130% 성장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함. 즉각적으로 동사의 이익 성장에 기여할 전망임

화학/정유

5월 성과 분석

- 5월 정유 업종지수는 -0.4%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9.6%P 하회. 유가 조정으로 재고관련이익 축소 전망 및 등/경유 크랙 감소에 기인
- 5월 화학 업종지수는 -17.6%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6.9%P 하회. 원재료 가격 투입가 급등에 따른 부정적인 래깅 효과 전망 때문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정부, 석유 최고가격 4회 연속 동결

- 물가 안정 우선을 고려하여 정부는 휘발유/경유 최고가격 유지.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석유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변경하기로 결정. 기존 2주 단위에서 앞으로는 4주 단위로 운영한다는 방침
- 현재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최대 6개월 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약 4조2천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상태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줄여 성장축 키운다

- 1분기 영업이익 735억원 기록하며, 10분기만에 흑자전환. 대산 NCC 재편 추진하며, 설비 부담 줄이고 재무개선 집중
- 또한 동사는 대산에 이어 여수와 타이탄 재편까지 마무리되면 체질 개선 효과는 더 커질 전망

[화학/정유/에너지] 이동욱

화학/정유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 6월 화학 업종은 5월 부정적인 래깅 효과 제거로 5월 대비 실적 흐름 개선 전망. 합성고무/라텍스 등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 6월 정유 업종은 높은 등/경유 스프레드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지속된다면 원유 조달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6월 Top Picks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중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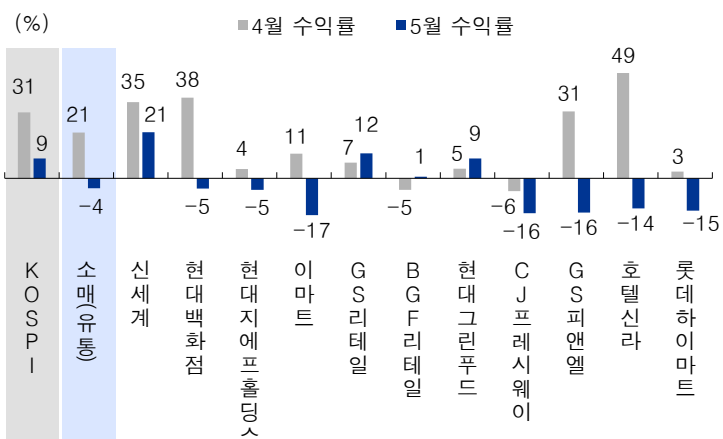
롯데정밀화학

-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가격 급등세 기록. 동사의 암모니아 사업의 판가 인상에 기여할 전망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유 상품/현금을 고려한 업종 내 차별적인 재무 안정성 지속 전망

유통/식자재

5월 성과 분석

- 5월 유통 업종 지수는 -4.5% 하락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약 -13.7%P 하회
- 명품 및 의류 매출 신장으로 주요 백화점 업체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의류 및 패션 잡화 호조로 이익 기여도 증가
-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하이엔드 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쿠팡 1분기 영업손실·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

- 26년 1분기 쿠팡 영업실적은 적자로 전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3,545억 원
- 이는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판단. 1) 정보유출에 따른 매출액 성장세 둔화와, 2) 이로 인한 보상액 지급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제품 홍보과정에서 차용한 문구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것을 연상시킴
-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퇴진과 불매 운동이 맞물리면서 SCK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이마트의 주요 실적을 차지하는 만큼 펀더멘탈 훼손 가능성 대두

[유통・식자재/지주] 남성현

유통/식자재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2분기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백화점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으로 기대. 특히, 의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영업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질 전망
- 중국 노동절에 따른 방한 중국인 증가와 이외 외국인 수요 확대로 국내 호텔업체 실적 성장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
- 서울 이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방한 수요도 확대되는 만큼 주요 지방권 호텔 실적 개선도 기대
- 인바운드 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와 주요 호텔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관련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더욱 주목
- 주요 지주사 1분기 영업실적 개선으로 시가 배당수익률 기대감 상승

6월 Top Picks

오리온홀딩스

- 오리온제과 실적 고성장과 쇼박스 이익 기여도 증가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
- 4월에도 오리온제과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등 2분기 실적 성장도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
- 주요 종속회사 영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주당배당액은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DPS 1,200원 예상)
- 배당수익률 증가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호텔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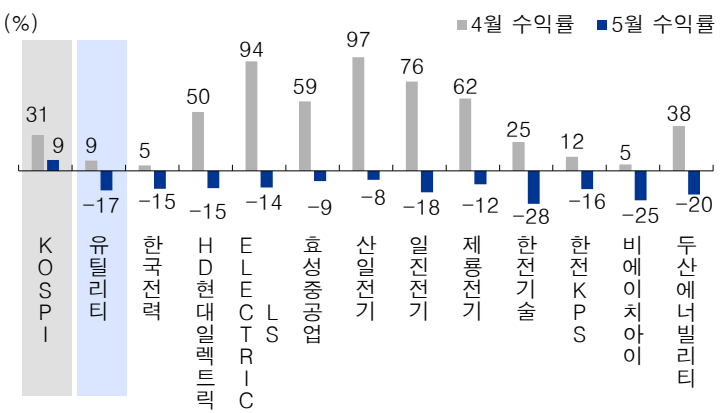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매출액 1.05조 원(YoY +8.4%), 영업이익 204억 원(흑자전환)으로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
- 1) 상품 마진율 개선, 해외공항 임대료 환입, 2) 인바운드 확대로 호텔 ADR 상승, 3) 제주 내국인 입도객 회복으로 제주호텔 실적 성장
- 1분기 비수기임에도, 서울 호텔 투숙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ADR 상승이 실적 견인한 것으로 추정

[유통・식자재/지주] 남성현

유틸리티

5월 성과 분석

- 5월 유틸리티 업종은 16.7%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6.0%P 크게 하회함. 4월 LS ELECTRIC, 산일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중심으로 업종 전반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만큼, 5월 들어서는 실적발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음
- 특히 전쟁 장기화 우려로 미국 원전 확대 기대에 기반해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등 원전 관련주 낙폭이 두드러짐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양호한 1분기 실적 흐름

- 유틸리티 업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함. 특히 한전기술(체코 두코바니, 신한울3·4호기 등 대형 원전 용역 매출, 혁신형 SMR 종합설계)과 비에이치아이(HRSG·보일러 수출)가 시장기대치를 크게 상회
- 반면 한국전력(연료비 상승)과 효성중공업(실적 이연)은 컨센서스를 약 10% 하회

유틸리티 기업 1분기 실적 및 컨센 비교

(단위: 억원)	1Q26 실적		전년 대비		컨센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예상
한전기술	1,133	141	17.5%	1081.8%	-6.4%	86.5%	상회
비에이치아이	2,808	353	107.6%	183.9%	39.7%	76.2%	상회
대한전선	10,834	604	26.6%	122.9%	9.7%	54.7%	상회
LS에코에너지	2,855	201	25.0%	31.1%	12.8%	17.7%	상회
일진전기	5,061	508	10.6%	49.1%	-3.6%	12.5%	상회
산일전기	1,503	555	52.1%	47.9%	2.2%	1.5%	부합
HD현대일렉트릭	10,365	2,583	2.2%	18.4%	-6.5%	-4.6%	하회
LS ELECTRIC	13,766	1,266	33.4%	45.0%	2.7%	-5.0%	하회
효성중공업	13,582	1,523	26.2%	48.8%	2.2%	-9.5%	하회
한국전력	243,985	37,842	0.7%	0.8%	-1.5%	-10.7%	하회

자료: 각사,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통신/유틸리티] 김태현

유틸리티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 전력기기 대표 3사(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모두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신규 수주는 유의미하게 증가함
- 효성중공업의 신규 수주는 4.2조원(+108% YoY), HD현대일렉트릭은 2.5조원(+35% YoY), LS ELECTRIC은 1.1조원(+27% YoY)로 확대됐으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하며, 단기간 내 공급 부족 완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함
- 이에 5월의 주가 조정은 4월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6월 Top Picks

효성중공업

- 1분기 실적이 일부 이연되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이는 2분기 약 400억원으로 반영될 예정
- 중공업 부문의 분기 수주 규모는 통상 최대 2.2조원 수준이었으나, 1분기에는 4.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됨
- 특히 미국 최상위 전력망(765kV)급 변압기 공급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물량 중심의 수주 확대 및 마진율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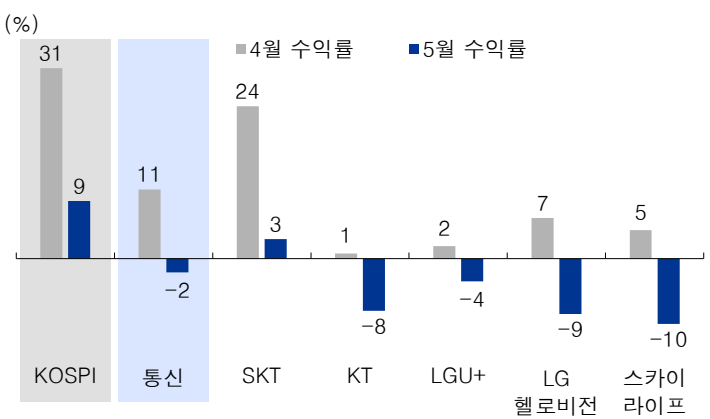
-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으나, 연간 수주 가이던스(42.2억 달러)의 42.6%를 1분기에 이미 달성할 정도로 수주는 매우 견조했음
- 미국 내 765kV급 초고압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울산(27년) 및 미국 앨라배마(28년) 공장 증설 효과를 고려하면 중장기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함

[통신/유틸리티] 김태현

통신

5월 성과 분석

- 5월 통신 업종은 2.2% 하락해 코스피 수익률을 11.4%P 하회함. 이는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방어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신 업종에 대한 투심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8%, 4% 하락한 반면, SK텔레콤은 차별적인 흐름을 보임. 통신 본업의 방어주 성격은 동일하지만, 보유 중인 앤트로픽 관련 지분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AI 투자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한 것으로 판단됨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1분기 실적,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

- 통신 업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함. SK텔레콤은 가입자 감소에 따른 별도 실적 둔화를 SK브로드밴드의 견조한 실적 개선이 일부 상쇄하며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시현. KT는 판매비 증가, 해킹 대응 고객 감사 패키지 영향, 분양 수익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됐지만 낮아진 컨센서스에는 부합. LG유플러스도 가입자 기반 확대와 인건비 등 비용 효율화로 안정적 실적 지속됨

통신3사 1분기 실적 및 컨센 비교

(단위: 억원)	1Q26 실적		전년 대비		컨센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예상
SK텔레콤	43,923	5,376	-1.4%	-5.3%	-0.1%	4.9%	상회
KT	67,784	4,827	-1.0%	-29.9%	0.0%	-1.8%	부합
LG유플러스	38,037	2,723	1.5%	6.6%	-1.7%	-2.8%	부합

자료: 각사,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통신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 6월에도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통신 업종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작년 해킹 이슈로 2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했음을 고려하면 올해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2Q25 이후 중단됐던 분기 배당이 재개됐다는 점도 투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KT도 1분기에 이어 2~3분기에도 실적 감소가 예상되나,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 또한 전년과 같은 2,400원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환원 정책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6월 Top Picks

SK텔레콤

- 실적은 2분기부터 보다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날 전망. 지난해 2분기에는 신규 영업정지와 가입자 이탈 영향,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 비용 등이 반영돼 실적 기저가 크게 낮아진 바 있음. 또한 3~4분기에는 요금 할인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이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분기 편안한 이익 회복 흐름이 예상됨
- 1분기에 배당(주당 830원)이 재개됐으며, 올해 실적이 해킹 사고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연간 배당금 역시 2024년 수준(3,540원)으로 정상화될 가능성 높아 보임

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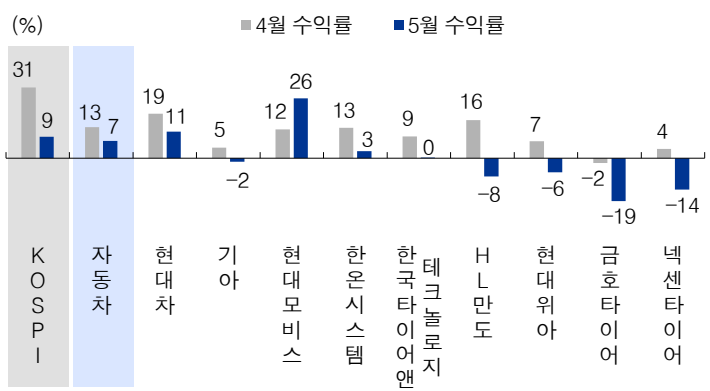
-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대체로 부합함. 전년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약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가운데, 비용 구조 개선과 유무선 가입자 기반 확대 효과가 이어지며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1조 991억원 (+23.2% YoY)으로 개선될 전망

[통신/유틸리티] 김태현

자동차

5월 성과 분석

- 5월 자동차 업종은 +7.4%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1.8%P 하회
- 25년 10월 깐부치킨, 26년 1월 CES, 3월 GTC, 5월 로봇 컨퍼런스 등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뉴스플로우 지속 중
- 5월 미국 컨퍼런스에서 현대차그룹이 로봇 관련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모비스가 강세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현대차그룹, 신형 ATLAS 및 로봇 비전 공개

- BD가 23kg 이상의 냉장고를 들어 나르는 영상과 함께 엑추에이터, 관절, 모듈화, 지능 등 다양한 스펙을 공개함
- 로보틱스 밸류체인은 BD가 기술, 현대기아가 제조, 현대모비스가 부품,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및 SCM, 현대오토에버가 SI로 구분됨

BD Atlas 23kg 냉장고 이동 시연

자료: BD, IBK투자증권

자동차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미국 로보틱스 핵심시설은 3개로 1) 생산: RA(Robotics America), 2) 훈련: RMCA(로봇메타응용센터), 3) 부품: Actuator Manufacturing
- 28년부터 로봇 3만대 , 액추에이터 35만개 CAPA 보유 예정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6월 Top Picks

현대차

-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될 로보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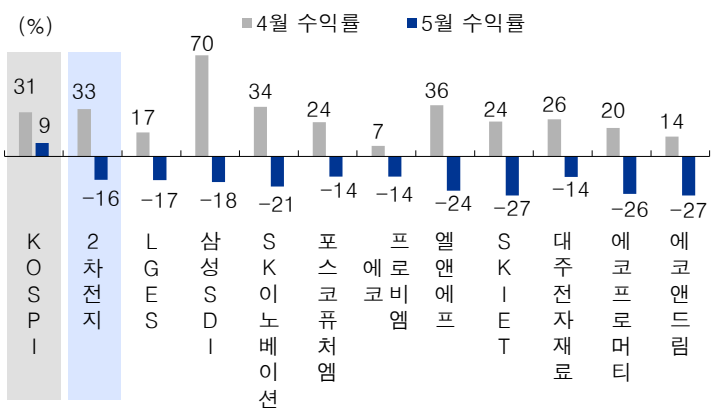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2차전지

5월 성과 분석

- 5월 2차전지 업종은 -16.5%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25.7%P 하회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
-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ESS 성장이 폭발적인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업황 개선 기대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7.6% 상승, CATL은 +16.5%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21.6배, 27년 14.8배, 28년 11.8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31.6%, 27년 +44.5%, 28년 +45.5%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856.1	55.4	31.9	21.6	14.8	11.8
삼성SDI	163.3	32.0	22.7	13.9	15.8	12.4
SK이노베이션	17.3	19.7	15.3	12.0	9.6	7.8
CATL	20.3	16.5	13.6	31.5	10.2	8.1
Panasonic	31.7	17.5	14.6	12.1	9.0	7.6
BYD	17.4	13.9	11.6	12.4	5.4	4.2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512.5	236.8	98.4	71.1	53.6	40.9
에코프로비엠	395.6	184.6	115.5	67.2	51.2	44.6
엘앤에프	1232.1	61.5	32.8	176.1	26.9	19.2
Umicore	15.1	14.2	12.6	7.9	7.4	6.8
Sumitomo Metal	17.3	14.1	13.5	12.1	15.6	17.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5월 21일 기준

2차전지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던스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검색량 79% 증가, 4월 유럽 BEV 판매량은 YoY +39.8% 급등하며 관심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6월 Top Picks

삼성SDI

- 북미향 ESS의 경우 2028년 물량까지 전량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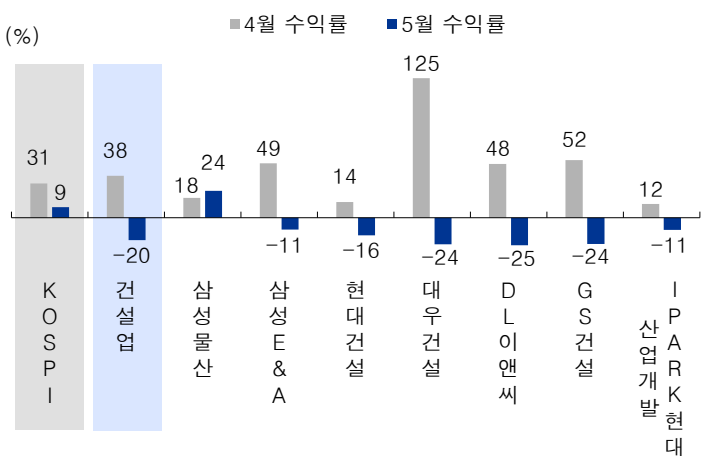
더블유씨피

- 2026년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 YoY +100% 이상을 제시하며 평균 가동률도 25년 40% 수준에서, 26년 60~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제시
- 북미 ESS향 중심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분리막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은 ESS 50%, EV 30%, 소형전지 20%로, ESS 위주의 높은 성장 기대

건설/부동산

5월 성과 분석

- 5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20.2%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29.4%P 하회. 부진한 성과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 재건 기대로 유입되었던 단기 수급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
- 종목별 수익률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부각되면 가장 높은 성과(+24.1%)를 보였음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미국 원전·SMR 정책의 실행 단계 진입

- 미국 에너지부는 5월 14일, 미국 내 경수로형 Gen III+ SMR의 조기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8개 기업에 총 9,400만 달러 이상의 비용분담형 보조금을 지급
- 지원 목적은 인허가, 공급망, 부지 준비 등 실제 배치 과정에서 병목이 되는 영역을 줄이는 데 있음. 이는 2025년 12월 에너지부가 TVA와 홀텍을 각각 선정해 총 최대 8억 달러, 즉 각 4억 달러 규모의 연방 비용분담 지원을 결정한 흐름의 연장선
- 특히 홀텍의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 관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의미. 홀텍은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300MW급 SMR-300 2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DOE의 4억 달러 지원 대상
- 현대건설은 홀텍과의 협력을 통해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에 참여 중

건설/부동산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 따라서 6월 건설 섹터 전략은 실적보다 수주 모멘텀에 초점을 맞출 필요. 주택 원가율 개선이나 국내 착공 회복도 중요하지만, 주가 탄력은 결국 신규 성장 스토리가 붙는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 관점에서 6월에는 팰리세이즈, 북미 SMR, 대형 원전,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과 연결되는 기업군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
- 핵심은 미국 원전 정책이 자금 집행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 과거 원전 테마는 정책 발표 이후 인허가와 금융 조달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DOE 보조금, 팰리세이즈 재가동 지원, SMR 부지 준비, 공급망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6월 Top Picks

현대건설

-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SMR 모멘텀의 가장 직접적인 국내 건설사. 핵심은 홀텍과의 팰리세이즈 SMR-300 FOAK 프로젝트, 연말 착공과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 중. 양사는 팰리세이즈를 시작으로 2030년대 북미에서 10GW 규모의 SMR-300 플릿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제시
- 홀텍의 팰리세이즈 프로젝트는 2025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의 4억 달러 매칭 그랜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6년 2월에는 NRC가 홀텍의 건설허가 심사 대상으로 접수

한미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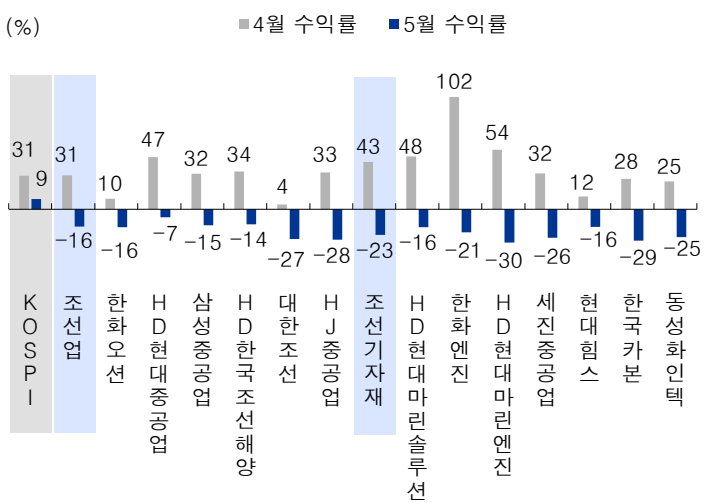
- 동사의 핵심 사업부인 하이테크 사업부는 P5 착공을 시작으로, 매출이 최소한 2027년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
- 동사는 5월 11일 앳킨스리얼리스(CANDU, EPR 노형 레퍼런스 존재)와 미국 내 산업플랜트·재생에너지·원전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 체결

[건설/부동산] 조정현

조선

5월 성과 분석

- 5월 조선 업종은 -15.7% 하락, 코스피 수익률을 -24.9%P 하회함. 4월 데이터센터향 엔진 판매 기대감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
- 조선기자재 업종은 -23.4% 하락, 코스피 수익률을 -32.6%P 하회함



주: 4월 수익률은 4.1~4.30, 5월 수익률은 5.1~5.20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5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데이터센터 향 엔진 수요 부각

- 4/16 핀란드 선박 엔진 업체 바르질라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총 412MW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엔진 40대 수주
- 과거 HD현대중공업은 남미, 중동 지역에 발전용 엔진 납품 이력이 있으며, 해당 엔진 공사건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음. 데이터센터향 엔진 시장이 다시 새로 열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
- 데이터센터향 엔진 모멘텀으로 주목하는 종목은 단연 HD현대중공업임. 한화엔진은 이제 막 4행정 엔진 시장에 진입,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수익성 아직 경쟁사 대비 낮음. STX엔진 역시 4행정 엔진을 제작하지만, 기타 2행정, 방산향 엔진 수익성이 좋지 않음

조선

6월 전망 및 투자전략

5월 6월 7월

- **발주**: LNGc 발주 재개. 25년 신규 LNGc 발주는 32척으로 YoY -58% 감소. 미국의 중국 제재 리스크로 해운사들의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 그러나 11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LNGc 발주 재개 중. 26년에는 100척 수준의 발주 전망
- **모멘텀**: 미국 함정 건조 관련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 협력, 투자 등 가시적인 진척 본격화 예상
- **실적**: 22년 수주 물량 완전히 해소, 23~24년 수주 물량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신조선가지수는 23년초 162.2pt에서 24년 9월 189.9pt까지 17% 상승. 상선 부문에서도 여전히 실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
- **투자전략**: 중형 조선사, 엔진 제조사 위주 비중확대 전략

6월 Top Picks

HJ중공업

- 실적: 4Q25 영업이익 QoQ 772.9% 증가. 24년 수주한 고선가 컨테이너선이 매출에 반영되며 신조선 부문 +14.9% OPM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26~27년 신조선 부문 매출, 수익성 동시 개선 지속 전망
- 모멘텀: 군산조선소 연결 편입 가능성 모멘텀. 대형사와 유사하게 미국 진출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 전략상선단, 군수지원함, 수송/상륙함 분야에서 협력 가능. 추가적으로 이르면 올해 UAE향 고속상륙정 수출 모멘텀 존재

HD현대중공업

- 실적: 올해 해양 부문의 매출 증가하고, 상선 부문의 믹스 개선 지속 전망
- 모멘텀: 데이터센터향 엔진 시장 개화. 최근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 AEG와 684MW, 6,271억원 규모 계약 체결, 헌팅턴잉걸스와의 세컨 야드 JV 설립 모멘텀

[조선/기계] 오지훈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4.01~2026.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9	92.7
Trading Buy (중립)	10	6.7
중립	1	0.7
매도	0	0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레저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미드·스몰캡	6915-5473	kmg@ibks.com
김혜빈	연구원	로봇	6915-5669	hyebhinkim@ibks.com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